

이야기 40

사회정의

투쟁인가, 사랑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희생을 감수하며,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며 사회정의를 외칩니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투쟁하며,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과 기본 자유를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적(macro) 관점의 사역과 달리, 고통받는 이웃의 곁에 서서 그에게 좀 더 나은 삶과 희망을 갖도록 힘을 보태 주려는 미시적(micro) 관점의 사역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자세

투쟁 — 승리 아니면 실패	희망 — 약자 편에 서다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것이다.	승리보다 발전을 목표로 하기에 장기적 안목을 가진다.
나의 투쟁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적이다.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취한다.
	상대를 물리쳐야 할 적으로 보지 않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표면적으로는 같아 보여도 이 둘은 기본 관계 형성 자체가 다르고 동기가 다르기에 사역의 지속력과 대인 관계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둘 다 필요하다

불의의 실체는 하나라도 그로 인한 피해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또 그 피해를 줄이는 방법 역시 다양하기에 우리가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를 사용할 기회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암을 근본적으로 이기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또 생명 연장까지는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면서도 불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 나눠 자료

이 이야기는 에세이입니다. 사회정의를 향한 두 가지 자세 — 투쟁과 희망 — 를 정면으로 비교합니다. 나눔의 핵심은 어느 쪽이 옳은가를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자세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내 삶에서 나는 어느 방향에 있는지, 그리고 거시와 미시 사역이 왜 둘 다 필요한지를 함께 살피는 시간입니다.

— 교회 공동체 —

20-35세 | 교회 모임

도입 (5분)

- 사회정의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본문 나눔 (20분)

- 투쟁(승리/패배)과 희망(발전/설득)의 자세 — 이 둘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보이나요? 각자의 삶에서 이 두 자세를 본 경험이 있나요?
- "나의 투쟁을 반대하는 자는 적이다" — 이 자세가 어떤 결과를 만드나요?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거시 사역(구조 변화)과 미시 사역(개인 돌봄) —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면, 내가 더 자연스럽게 끌리는 쪽은 어느 쪽인가요? 왜?
- 암 치료의 비유 — 근치(cure)와 완화(palliation) 모두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정의 사역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성경 연결 (10분)

야모스 5:24 —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 이 말씀의 정의가 투쟁의 언어인가요, 희망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 예수님은 사회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셨나요? 거시적이었나요, 미시적이었나요?

삶에 적용 (5분)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미시적 사역 —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 한 사람 곁에 서는 것 — 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6-60세 | 교회 모임

도입 (5분)

-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면서 소진되거나 환멸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엇이 그 소진을 만들었나요?

본문 나눔 (20분)

- 투쟁 자세의 지속력 문제 — 승리/패배의 프레임이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드나요? 실제 사례를 보셨나요?
- 희망 자세 — 적을 대화로 설득한다는 것이 현실적인가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어떤 조건에서 불가능한가요?

- 거시와 미시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자의 소명에 따라 분담해야 하나요?
- "정의의 위한 투쟁을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 연결 (10분)

미가 6:8 —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 공의(정의 추구)와 인자(이웃 돌봄)가 같은 명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거시와 미시 사역의 공존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삶에 적용 (5분)

- 지금 내가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거시적 정의와 미시적 돌봄 중 더 부족한 쪽은 어느 쪽인가요? 한 걸음은?

60세 이상 | 교회 모임

도입 (5분)

- 오랜 삶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 분들을 보셨나요? 그 삶이 어떤 자세로 이루어졌나요?

이야기 나눔 (20분)

- 투쟁 자세로 시작했다가 변화한 사람, 또는 처음부터 희망 자세를 가진 사람 — 어떤 차이를 보셨나요?
- 거시적 정의 운동과 미시적 개인 돌봄 — 오랜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쪽이 더 오래 지속됐나요?
- 암 치료의 비유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어떤 면에서인가요?

성경 연결 (10분)

이사야 58:6-7 —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 주며”

- 결박을 푸는 것(구조적 해방)과 양식을 나누는 것(직접 돌봄) — 이 말씀이 거시와 미시의 공존을 어떻게 담고 있나요?

삶에 적용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반 커뮤니티 —

20-35세 | 커뮤니티 모임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사회정의 운동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져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어떠했나요?

함께 생각해 봐요 (20분)

- 투쟁(적/승리)과 희망(선택/발전) — 이 두 자세가 실제 운동이나 조직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나요?

- "나의 투쟁을 반대하는 자는 적이다" — 이 사고방식이 어떤 문제를 만드나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이나요?
- 거시 변화(법, 제도, 구조)와 미시 돌봄(개인, 이웃, 커뮤니티) —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둘이 갈등할 때 어떻게 하나요?
- 암 비유 — 근치와 완화가 둘 다 필요하듯, 정의도 구조 변화와 개인 돌봄이 둘 다 필요하다.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한 발 더 (10분)

- 소진 없이 장기적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어떤 자세와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나요?

오늘의 실천 (5분)

- 지금 내 주변에서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 한 사람이 있다면 — 내가 미시적으로 곁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6-60세 | 커뮤니티 모임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사회정의를 위한 운동이나 활동에서 소진이나 환멸을 경험하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나요?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함께 생각해 봐요 (20분)

- 투쟁 프레임의 지속력 문제 — 승리/패배 구도가 장기적으로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희망 자세 — 적을 설득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어떤 조건에서?
- 조직이나 팀에서 거시적 목표(구조 변화)와 미시적 돌봄(개인 지원)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나요?
-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 발 더 (10분)

- 투쟁 자세와 희망 자세 중 어느 쪽이 더 광범위한 연대와 장기적 변화를 만드나요? 역사적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나요?

오늘의 실천 (5분)

-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60세 이상 | 커뮤니티 모임

이야기 들어가기 (5분)

- 오랜 삶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일한 분들을 보셨나요? 그 분들이 가진 자세가 어떠했나요?

이야기 나눔 (20분)

- 투쟁 자세로 시작했다가 변화한 운동이나 사람 — 무엇이 변화를 만들었나요?
- 거시와 미시 사역의 공존 — 오랜 경험에서 어떻게 가능했고 어떻게 실패했나요?
- 다음 세대에게 사회정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자세에 대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실천 (5분)

- 오늘 모임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을 나눠주세요.

인도자 가이드

이 이야기의 핵심

이 이야기는 사회정의를 향한 두 가지 자세의 차이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가 아니라 — 두 자세가 어떻게 다른 관계와 지속력을 만드는가, 그리고 거시와 미시 사역이 왜 둘 다 필요한가. 암 치료의 비유가 이 이야기의 가장 강한 지점입니다: 근치와 완화는 목표가 다르지만 둘 다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다루는 것

- ① 투쟁 자세 vs 희망 자세 — 동기와 관계 형성의 차이
- ② 거시 사역 vs 미시 사역 — 둘 다 필요하다
- ③ 암 비유 — 근치와 완화의 공존
- ④ 정의 투쟁 중에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의 시리즈 내 위치

이야기 13(재난)이 구제를 ‘풍성한 삶으로의 복귀’로 정의한다면, 이 이야기는 그 정의를 정의(justice) 운동 전체로 확장합니다. 이야기 28(HIV/AIDS)이 해결 불가 상황에서의 돌봄을 다루고, 이야기 38(전인 치유)이 개인 치유를 넘어 동네 치유로 확장되듯이, 이 이야기는 개인 돌봄과 구조적 정의가 왜 분리되면 안 되는지를 다룹니다.

모임 시작 방법

- ✓ “사회정의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로 시작하세요. 이 질문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참여자들이 가진 각기 다른 경험과 반응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 ✓ 또는: 표를 먼저 보여주고 “이 두 자세 중 어느 쪽이 더 익숙하게 느껴지나요?”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의할 순간

△ “투쟁이 나쁘다” “희망이 현실적이지 않다” 이분법 논쟁이 되는 경우 어느 쪽이 옳은가 싸움이 됩니다.

전환: “저자는 어느 쪽이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 자세의 동기와 관계 형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이야기해봅시다.”

△ 사회정의 이슈 자체로 논쟁이 흘러가는 경우 특정 이슈(정치, 이민, 환경 등)의 옳고 그름 논쟁이 됩니다.

전환: “오늘 이야기가 묻는 것은 어떤 이슈가 옳은가가 아닙니다. 정의를 향해 일하는 자세와 동기가 어떻게 다른가요.”

△ **거시 vs 미시가 또 다른 이분법이 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논쟁이 됩니다.

전환: “암 비유를 다시 봅시다. 근치와 완화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맞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 **이야기가 추상적 토론으로만 머무는 경우 개인 성찰이 빠집니다.**

전환: “지금 내 삶에서 —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로 개인 질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이야기의 민감도 주의

사회정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인도자는 특정 이슈나 정당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세와 동기의 차이에 집중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인도자 안내: “오늘 우리는 어떤 이슈가 옳은지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향해 일할 때 우리가 가지는 자세와 동기가 어떻게 다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룹별 접근

사회운동 경험자 그룹: 투쟁 자세와 희망 자세의 차이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나눌 공간을 만드세요.

교회 리더십 그룹: 교회가 거시적 정의와 미시적 돌봄을 어떻게 균형 있게 감당할 수 있는지 직접 다루어도 좋습니다.

의료·복지 종사자 그룹: 암 치료의 비유가 직업적으로 직접 닿습니다. 근치와 완화의 공존이 자신의 일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어보세요.

청년 그룹: 사회정의 운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세대입니다. 투쟁 자세의 소진 문제와 희망 자세의 장기 지속력을 솔직하게 다루세요.

마무리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미시적 사역 — 불의로 고통받는 이웃 한 사람 곁에 서는 것 — 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이 질문으로 닫습니다.

✓ 또는: 각자 자신이 더 자연스럽게 끌리는 자세(거시/미시, 투쟁/희망)를 확인하고, 부족한 쪽을 위해 한 걸음을 생각해봅니다.

저자의 한 마디: “정의를 위한 투쟁을 하면서도 불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